



보내는 기쁨: 12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받는 즐거움: 남녀대협 산하 각급단위 여학생회  
 용 도: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을 참조하시고 다음은  
 구체적 점검사항입니다.

### 1.연대단위와의 사업

- 1)초대장 보내기
- 2)공동성명서 채택
- 3)신문광고모금
- 4)프랑 제작 2개
- 5)서명운동
- 6)연대단위 포스터 보내기

연대단위의 점검

광주전남여성단체 연합/도여농/군산-남여대협

광주여성회-호남대/보육교사회

광주여성의 전화, 영광, 화순여성농민회- 전남대

광주여성노동자회와 병원노련/구례, 해남여성농민회-조선대

목포여성의 전화와 나주여성농민회-목포대

기타 민가협과 보육교사회

★연대단위와의 성명서 및 모금이 되는대로 여대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대학내의 선전

- 1)출범식 관련 선전

-대자보, 대형프랑, 화장실 선전

- 2)서명운동

제출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모금까지 함께합니다.

- 3)신문광고

5월 28일자 신문에 실을 예정입니다.

5월 25일까지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주시시오

대학별 2만원씩

074-121-242452  
유정숙

4) 5월 25일 대학별로 포스터 배포예정

### 3.서울에 가지고 올라갈 것

1)플랑(대학부착 및 대열플랑)

2)손깃발

노란색에 주한미군 철거 50개.

3)선전의 거리 대자보

주한미군범죄 사진-호남대

한미행정협정의 부당성-목포대

당면한 전쟁책동에 대한 부분-조선대

군산미군기지 투쟁보고-전남대

남녀대협 의장님 선전과 함께 남녀대협 소개-전남대

4)문예공연 준비 (주한미군 철거)

대중이 일어나라  
남미출정가

전대 총여에서 인식극 대본을 내오고 준비는 서울에 모여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5)남녀대협 출범식 기념티를 입고 갑시다.

6)대학별 아지문 및 위에서 학우, 시민 만날 내용을 교양, 준비해 봅시다.

7)지역별 유인물

남녀대협에서 초안을 고민하고 대학의 결의로 재정문제 해결

대학별 1만원씩

★서울에 가지고 갈 선전물은 5월 25일날 서울 모대학으로 보내주시시오

오

★5월 25일까지 대학별로 3만원씩 여대협으로 총화해 주십시오  
(신문광고비 및 유인물 비용)

이와 함께 기념티값을 걷히는 대로 총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남녀대협 조직화 목표

50여학일꾼 + 50새내기 및 과여부장

모든 여학일꾼들은 다 올라가자는 결의로

모든 점검총화는

1차 5월 25일 저녁 8시까지 여대협으로

#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 성사를 위한 연대제안서

수신;광주,전남지역 제 사회단체

발신;12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한총련과 전여대협은 지난 13년의 역사속에서 단 한번도 조국과 민중을 위해 투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한총련과 전여대협에 대한 부당한 이적단체규정을 하고 대의원에 대한 구속수배, 모든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등 광폭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8-30까지는 서울에서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이 개최될것입니다.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은 백만학도의 투쟁의 장이자 명실상부한 축제의 장으로 탄압을 받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출범식 역시 정권의 광폭한 탄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을 100만학도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은 여성단체 및 각급노조,농민회, 여러 애국민주단체의 합찬 지지와 연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을 성사하기 위하여 연대와 지지를 해줄것을 부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한총련 출범식 공동광고를 제안합니다.

<광고문안>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을 축하합니다.

한총련, 전여대협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민중생존권탄압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7기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

일시;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1999년 5월 28-30일

장소;서울 연세대학교

공동광고는 5월 28일일짜 한겨레 광고로 나갈 것입니다.

공동광고는 개인 명의 혹은 단체명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공동광고를 내주실 때는 개인은 5,000원이상,단체는 20,000 정도로 송금해 주시면 신문광고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2,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에 초청합니다.**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 초청합니다.모든 단체회원들이 참가하시지 못하더라도 연대사업부장님과 회장님들이라도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은 29일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 6시

**3,각 단체의 명의로 축하플랑을 써줄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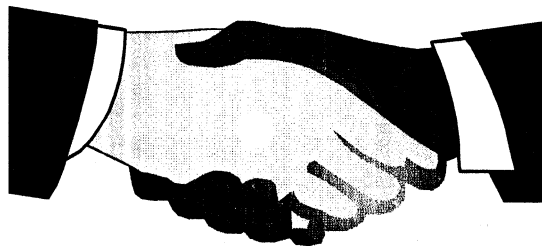
각 단체의 명의로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 축하와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지지플랑을 제작하여 연대하고 있는 학교 혹은 출범식 개최장소에 부착하여 주시면 저희 청년학생들은 더욱더 힘을 가지고 성사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각 단위에서 제작하여 주시고,그렇지 않으면 연대하고 있는 대학혹은 단과대학에 명의를 빌려 주시면 직접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 평화적 개최보장과 이적규정철폐,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대성명서]를 조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0.20*

기간 지지해주신 단체의 의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번에는 각 단위에서 지지와 연대를 담은 성명서를 직접 발표해주십시오

출범식 개최보장을 위한 힘찬 지지와 연대에 감사합니다. 투쟁!!!!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2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전여대협 총회 성사보고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철회하며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 보장을 요구하는  
전여대협 서명모금운동**

우리는 지난날 학생운동을 탄압한 정권은 언제나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들고 탄압했던 김영삼 전(前)대통령 역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은 아직 출범은커녕 한해의 나아갈 바를 논의 확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치루지 않았기에 정식으로 건설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을 벌써부터 이적단체라 규정하면서 평화적인 행사, 대의원대회부터 막아 나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은 항일민족해방투쟁과 해방이후 즐기차게 전개되어온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계승한 한국 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전대협 한총련 13년의 역사는 민족들과 함께 투쟁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왔던 역사이며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투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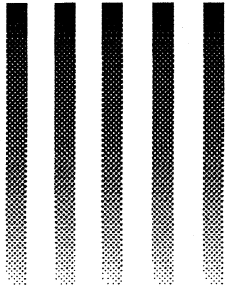
당면하여 전개되고 있는 정권과 공안당국의 한총련 대의원 탈퇴공작은 자신의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반역사적 반민중적 행동입니다.

언제나 한총련과 함께 투쟁으로 역사를 개척해온 전여대협이 지난4월 전국의 대표자들이 모여 총회를 성사시켜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막아 나르고 출범식 또한 탄압하려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의 한총련 이적규정은 부당하며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은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애국하는 청년학생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애국청년학생을 잡아가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적규정 철회하라.
- 대의원에 대한 검거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적규정 철회하고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회하라
- 전여대협 총회 성사했다. 한총련 대의원 대회 보장하라
- 50만의 축제의장 전여대협 출범식 보장하고 100만의 축제의 장 한총련 출범식 보장하라

| 번호 | 이름 | 주소 | 한마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 대 합 니 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내 여대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자주적 대중조직인 각 대학 총여학생회를 회원단체로 하는 전국조직,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입니다. 다름아니라 다가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전여대협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28일부터 있을 백만의 축제의 장 '한총련 출범식' 일정 중 둘째날 부문계열 출범식 때 행해지는 것으로 96년 이후 정권의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기필코 출범식을 안정적인 공간에서 성사해 내겠다는 결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분명 각 대학에서 합법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우대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자신의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위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는 방식을 매년 채택해 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애국을 이야기 하는 젊은 청년들을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어왔습니다. 전여대협 또한 한민족의 절반된 주인으로서 여성민중들과 함께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외치며 투쟁으로 애국하며 걸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권의 표적이 되어왔고 수많은 선배전사들의 수배와 구속으로 일구어온 길이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벌써 조선대, 경산대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총여학생회장님들이 구속되었고 모든 전여대협 대표자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수배의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감옥에는 98년 작년한해 선봉에서 투쟁해온 총여학생회장님들이 7척담장 안에서조차 열심히 투쟁으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고 50년이 훨씬 지났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두동강으로 갈라져 있으며 일본이 이땅에서 쫓겨나고 나서 입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꽃히면서 지배와 예속의 상황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항문에 콜라병이 박히고 자궁에 우산대가 꽃히면서 잔인함을 감추기위해 세제가루까지 뿌려지며 난자당한 민족의 딸 윤금씨 이후 수많은 한민족의 여성이 처참히 유린 살해되고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우리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분단된 한반도, 식민지 한국을 읽을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를 물려서는 안된다, 우리 손녀들을 또다시 약탈자의 성노리개로 내몰게 해서는 안된다고 절규하며 눈을 감으신 일

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와 아직도 두눈 부릅뜨고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1세기를 향한 한일간의 그 무슨 새로운 관계 모색이네하며 할머니들의 고통의 삶을 덮으려 하고 있는 사대매국적 정권에서도 식민지 한국을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IMF라는 것을 들여와 한국의 경제를 송두리째 앗아가더니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조장하며 민족의 말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대매국적인 김대중 정권은 한미일 군사공조를 공고히 하며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있고 심지어는 '공참제도'라는 것을 입법화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제2의 정신대를 획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라고 선전하며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마치 여성의 정권인양 선전하며 여성을 위한 수많은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으나 지금에 와서 그나마 있던 여성관련 부처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후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빼앗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찾아주기느라 노동부 산하 여성담당 조직들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땅 여성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이러한데 어찌 청년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는 99년 또한 민중과 함께 투쟁하면서 역사의 주인으로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다짐을 출범식을 통해서 함께 결의할 것입니다.

귀 단체에서 전여대협의 출범식에 오셔서 애국하는 청년여대생들을 만나보시고 힘있는 연대를 해 주신다면 더할바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연세대학교 전여대협 출범식장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2천만여성민중의 목소리를 담고 계시는 귀 단체와 언제나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5월 19일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최선영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